

심미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상악절단부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class II jaw relation 환자에 있어 하악을 상악에 맞추기 위하여 너무 높게 배열하여 문제된 경우라면 하악을 삭제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2) 전치는 접촉하지 않고 구치만 접촉하는 경우. 하악을 전돌하여 구치만 접촉하고 전치는 접촉하지 않는 open-bite 상태가 되었다면 1mm 이상될 때는 인공치를 재배열 해야 되겠지만 약간일 때는 supporting cusp를 제외하고 protrusive premature 가 되는 부위 즉 상악에서는 각 cusp의 distal incline 하악에서는 mesial incline을 삭제하여 조절할수 있다.

selective grinding이 끝나면 abrasive (or milling) paste를 개재시키고 좌우, 전후운동을 시켜 거친 접촉면이 smooth 해지도록 milling해 주어야 하고,

상하악 치아접촉이 심하게 면으로 접촉시에는 groove를 깊게 한다든가 접촉면을 줄여주고 음식물이 빠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것이 좋겠고, 도치를 사용했을 경우 교두와 marginal ridge간 접촉이 butt joint가 되었을때 파절의 우려가 있으니 교두변연을 약간 round하게 grinding해 주면 방지할수 있다.

milling 까지한 의치를 구강내 장착시켰을때 교합의 error가 생겼다면 이는 간단히 구강내에서 삭제하여 수정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jaw relation recording시의 error이거나 교합기에 remounting 할때의 잘못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제작하든가 clinical remounting하여 교합을 수정해 주어야 할것이다. clinical remounting에 관하여는 대치협회지 1981년 1월호 서울치대 김영수 교수님 글을 참고했으면 한다.

학술분야소식

◆ 학술위원회 ◆

◎ 부산시 치과의사회 제 2회 학술대회 성료

지난 7일 부산관광호텔에서 200여 회원 참석리

지난 7일 부산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부산치과의사회주최 종합학술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경남지부회원들을 비롯 대구·경북지역회원들까지 대거참가, 영남지역 치의학 쉐스티벌로 성격이 차차 바뀌어 가면서 학술을 통한 친목과 우의를 굳건히 다졌다.

이날 오전10시 齒協 池憲澤회장, 金明國副會長, 李懋 총무이사, 金圭炆보협이사, 金英海 서울치대 학장, 卞鍾秀 경북치대학장, 梁棟奎 부산치대학장, 金和錫 경남지부장, 加藤日本福岡 치과의사회장등 여러명의 관계내빈과 부산·경남·경북회원 1백50여명을 비롯 치과 기공사 위생사 기재업자등 모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金命得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姜鎬躒 학술위원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金峻植부의장의 치과의사윤리강독에 이어 金聲來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술을 통한 대화의 광장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하고 『30년간의 숙원 사업인 회관파전에 회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했다. 이날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特別講演

- 1) 金英海 教授(서울大 齒大學長)
臨床家を爲한 齒內처치
- 2) 李善炯 教授(서울大 齒大)
臨床家を爲한 Crown & bridge
- 3) 李相喆 教授(慶熙大 齒大)
拔牙에 따르는 合併症의 예방과 처치
- 4) 古賀惠介 (日本 福岡市齒醫會 學術委員)
나의 日常齒科臨床

◎ 대한치과이식학회 월례학술집담회
대한치과 이식학회(회장 김 광현)에서는 지난17일

성모병원 2층 회의실에서 월례학술집담회를 개최
한바 있는데 연자와 연계는 다음과 같다.

● 연제 및 연자

1. 일본치과임프란트학회 참석보고-김홍기 박사
2. Blade Implant의 새로운 식립술-김홍기 박사
3. 미국치과임프란트학회 참석보고-이원철 박사

◎ 대한치과교정학회 제19차 정기총회 및 제14회
학술대회 개최

大韓齒科矯正學會 올해(제19회)정기총회및 제 14
회 학술대회가 지난21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열려 8백11만 3천여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학회활성화를 다짐했다.

1백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날 총회는 7백30
만 7천원의 지난해 결산을 승인하고 ▲年6회 학
술집담회 ▲지부순회 학술회등 사업 계획과 회원당
연회비 1만원 입회비 3만원 학회기금 2백50만원
을 전제로 편성한 8백11만 3천 8백원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는 「고분자재료의 현
대치과 교정학의 응용(三浦不二夫·東京醫科齒科大
교수)」에 대한 특강을 비롯 16개연제의 일반 강연
2개 연제의 테이블클리닉(吉井修·東京醫科齒科大)
이 진행 됐다.

◎ 서울치과의사회 및 공직치과의사회 공동주최
11월 학술집담회 개최

서울齒科醫師會 公職齒科 醫師會가 공동주최 하
는 11월학술 집담회가 지난20일 오전 8시30분 서울
대병원 A강당에서 열렸다.

30여 회원이 참가한 이날 학술집담회는 서울치대
金宗源교수의 「악안면 기형의 외과적치료」가 진행
되는데 金교수는 치과교정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
렵고 연령적으로 이미 늦은 케이스들은 외과적수술
을 통한 악교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증례 하
나하나를 분석 검토하면서 수술의 원칙과 주의사항
케이스별로 수술요점을 중점 강의했다.

金교수는 이러한 악교정의 외과적 수술은 치아의
기능회복과 함께 저작능률을 높이고 안모를 개선하
는데 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 경북치과의사회 학술대회개최

지난21일 안동 문화회관에서

慶北齒科醫師會 올해 학술대회가 지난 21일 안

동 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열려 학술을 통한회무활성
화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오후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
회에는 齒協池憲澤회장, 金明國부회장, 李懋충무이
사 姜泳圭재무이사, 金圭焄보훈이사등 관계 내빈과
50여명의 회원 이 참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회
식에서 尹大榮회장은 「학술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확대」를 강조 했고 池憲澤회장과 金明國 부회
장은 치의학의 평생교육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학술강연은 「치과임상가를 위한
해부학(金明國·서울 치대교수)」 「영구치 미완성치
근의 처치(宋英鎬·前조선치대병원장)」 「의료 보험
의 실제(金圭焄·치협보훈이사)」등 3개연제가 관심
있게 진행됐고 특별전시장에는 유명치과 기재상이
참가한 최신치과기기와 재료 약품등이 소개됐다.

한편 학술강연이 끝난후 각테일 파티를 가졌다.

◎ 대한치과 기공사협회 제17차 정기총회 성료
21~22일 신라호텔에서 총예산 4, 200여만원.

大韓齒科技工士協會 올해(제17차) 정기총회및 중
합학술대회가 지난 21~22일 신라호텔에서 열려 4
천29만여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맡은바
책무에 진력키로 다짐했다.

21일 오전10시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柳陽錫치협
부회장, 李晟雨보사부의정국장등 관계내빈과 9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는데 尹南基회장은 「회비 미
납자의 재제조치료 회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보건사회부 장관은 「무면허 기공업무의 근절」을,
池憲澤지협회장(柳陽錫부회장대독)은 「명량한 치과
진로질서를 위해 사명감에 진력할 것」을 당부했다.

총회는 1천2백 38만원의 지난해 결산안을 승인하
고 ▲미수금징수 강력추진 ▲회관전립기금 모금 ▲
연 2회 보수교육 등 사업계획과 회원당 연회비및
기공소당 연회비 각각 6만원 과년도미수금 1천 2
백76만원등을 전제로 편성된 4천29여원의 예산안
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총회에 이어 열린 제 8차 치과기공소운영위원회
정기총회는 徐基完씨를 위원장으로 선 출하는 한편
1천 7백50여만원의 예산을, 제 3차 치과기공 학회
정기총회는 6백53만 8천여원의 예산을 각각 마련
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도재전장금관(李善炯 서울치대
교수)등 특별강연 2개연제를 비롯 주제발표 8개연
제가 열강됐고 8개 치과 기재업체가 전시를 했다.